

[3 차시] 같음과 차이의 페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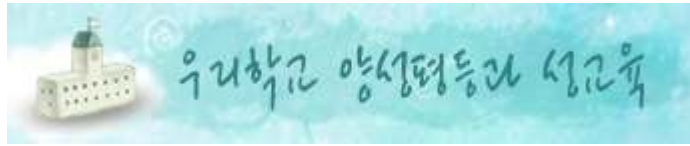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학습내용 -1] 포스트모더니즘

고전적 페미니즘과 달라지는 포스트페미니즘에 영향을 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명쾌하게 정의된 이론이 아니라 언어 지식 이성 권력 정체성 저항들에 관한 상호 연관된 아이디어들의 집합체이며 포스트구조주의와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20세기 후반의 후기 산업 사회들의 징후들과 연관되어 있다.

포스트구조주의의 아이디어들과 분석에 따르면 대상, 행위, 사회기구들의 의미는 그 자체에 내재해있지 않고 단어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당신은 페미니즘에 관한 책 어느 한쪽을 읽고 있다. 아마도 하얀 종이에 검은 표시들로 인쇄된 단어들을 읽고 있을 것이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는 ‘틀리지는’ 않지만 진실은 아니다. 의미는 고정되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며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과의 연관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분석은 서구의 이원적 사고체계 즉 진리와 거짓, 공/사, 혹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된 대립에 의존하는, 따라서 의미의 정체성에 의거하는 체계를 해체시킨다. 이 분석에 의하면 객관적 지식은 불가능하다. 지식은 항구적인 객체가 아니며 인식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는 우리의 인식이 최종적일 수도 완전할 수도 없으며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이론도 진리를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단어들 의미들 그리고 지식에의 주장들은 움직이며 흘러 다니며 자유롭게 떠다닌다. 이러한 담론의 패턴들을 형성은 사회 속에서의 권력행사와 연관된다. 프랑스사상가인 미셸 푸코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권력분석은 권력을 통치자나 정부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집중화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에 의해서 분절화 되고 편재되며 가족이나 학교 병원 같은 명백한 비정치적 기구들 내에서 미시수준에서도 행사된다. 지식에의 주장 특히 ‘과학적’ 지식에의 주장은 이러한 권력행사의 중요한 부분이고 기존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통제패턴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어떤 담론은 다른 담론보다 더 권력이 있으며 지배담론 혹은 세상을 보는 방식은 고로 현실에 대한 경쟁적 해석을 하는 하위 집단들에 의해서 경쟁대상이나 저항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도 전체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주변적이며 잠정적이다



[3 차시] 같음과 차이의 페미니즘

권력의 의미와 그 관계의 불안정성을 둘러싼 생각들은 후기프로이드적인 정신분석이론과 결합되어 성인의 정체성의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본성에 관한 주장들을 낳는다. 이들에 따르면 불합리하고 무의식적인 것이 의식적인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자율과 자기결정성은 의미를 잃어버리며 고정된 실체로서의 개인은 사라진다.

[학습내용 -2] 포스트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상식이라든가 불변의 지식, 이성, 과학 같은 거대담론들, 이성적 인간이라든가 계급, 정의, 자유, 평등, 보편적 목적 같은 개념들을 거부한다. 대신 이들이 형성되는 방식들을 분석하며 이 분석을 정치적 활동의 근본적 형태로 본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아 포스트페미니즘이 발전되었다.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변화가 생겼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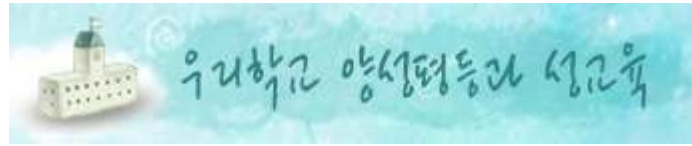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1) 이분법의 극복

모더니즘 속에서 우선시된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한다. 이분법적 사고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구체적 현실세계를 추상적 논리로 환원하여 경계를 넘나드는 현실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간과한다. 이성/ 감성, 공/사, 중심/주변, 정상/비정상, 문화/ 자연 등의 이분법을 만들고 전자에는 우월성과 후자에는 열등성을 부과함으로써 위계화하며 후자에 대한 전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후자를 보조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들은 페미니즘들이 주장해온 섹스와 젠더간의 구분을 반대한다. 젠더정체성은 다양하며 유동적이고 자유롭다.

2) 다차원적 사고와 여성간의 차이

모더니즘은 복합적인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누락하거나 폄하한다. 발전론적이거나 진보적인 사고를 최고의 선으로 보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이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 특정 현실이나 사물을 형성한다고 한다,

어떤 한 명의 여성주체는 장래 어머니일수도 학생일수도 예쁜 소녀일 수도 채식주의자일 수도 누구의 동생일수도 있으며 복합적인 속성을 내포한 주체이다. 또한 여성 간에도 인종 민족 학력 지역 등 복수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분열적 이슈와 주체를 전제하는 전면적인 차이



[3 차시] 같음과 차이의 페미니즘

가 존재한다. 여성의 경험을 단일하게 보지 않으며 여성간의 차이에도 주목하며 페미니즘이 서구백인중산층여성의 페미니즘만이 아니라 흑인여성, 제3세계여성, 아시아여성의 경험차이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렇게 포스트 페미니즘은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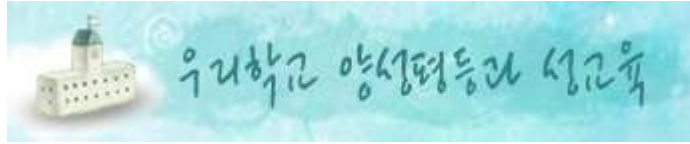
3) 포스트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1). 실천적 힘의 미약

포스트페미니즘이 이원론의 극복, 다원성의 추구들을 주장하는 철학과 이론으로서 어떤 이슈도 특권화 시키지 않고 진정으로 열려있는 포용성을 가지며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된 주체와 이슈를 가지고 실천하는 정치적 활동은 가능하지 않게 되며 현실에서 무책임하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공허한 이론이 될 수 있다 또한 억압받고 저항하는 일관된 정체성을 가진 주체로서의 여성 집단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고 운동할 주체세력자체가 사라진다.

(2). 정치적 대안의 부재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한 결과 여성간의 연대적 투쟁도 가능하지 않다. 여성간의 다양성이 공통성보다 우선시 된다면 연대하여 함께 표현하고 만들어 낼 공통적이 의제자체가 사라진다. 또한 저항하는 정치적 경제적 대안 자체도 사라지고 문화 심리적 실천, 담론적 실천만을 말함으로써 그 담론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경제관계의 맥락의 변혁은 간과된다.



[3 차시] 같음과 차이의 페미니즘

[학습내용 -3] 차이의 페미니즘

‘차이의 축하’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여성과 남성간의 인간으로서의 같음보다 차이를 강조하고 차이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페미니즘에 영향을 준다. 특히 여성심리를 남성 심리와 달리 배려하고 돌보는 관계적 자아를 발달시킨다고 보는 캐롤 질리건은 관계적 자아, 돌봄 노동, 보살핌의 윤리들에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1)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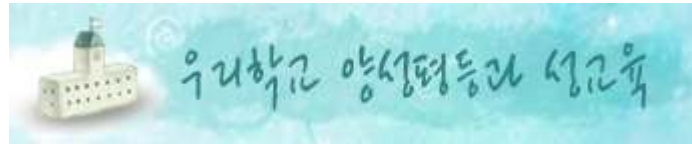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로렌스 콜버그라는 하버드대 아동심리학자는 그의 도덕발달이론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주장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이론을 자신의 도덕 발달 단계론에 적용하면서 그는 도덕발달단계를 6단계로 규정하는데

1. 자신에게 칭찬이 주어지느냐 처벌이 주어지느냐-최대쾌감과 최소고통
2.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위
3. 주위사람들의 생각에 일치하려는 성향-착한 소년-소녀
4. 종교적 혹은 법적 규범
5. 평등과 상호성의 원리 정해진 규칙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고려해 상대와 합의한 사항중시
6.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보편적 시점에서 대원칙마련

여성은 보편성의 6단계에서보다는 3단계의 구체성에 머무르면서 도덕발달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암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약값을 지불할 돈이 없는 남편은 희귀한 약을 훔쳐야 하나라는 하인즈의 딜레마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은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슬플 테니 훔쳐야 한다 라는 답변을 훔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니 약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답을 남성들이 더 많이 해서 여아보다 남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캐롤 질리건의 관계적 자아

1970년대 초 콜버그의 연구조교였던 캐롤 질리건은 여자들은 자신을 남들과 연결된 존재로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 난제에 부딪칠 경우 관계적 자아에 맞게 배려위주의 결정을 내리며 남자들은 개인주의적인 자아, 분리적 자아개념에 맞게 정의 중심의 결정을 내린다. 여성의 3단계는 상호인정과 보살핌의 단계이다



[3 차시] 같음과 차이의 페미니즘

캐롤 질리건(1982)은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에서 여성은 관계적 자아를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여성의 경험은 남성 심리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폭력이 거의 없는 안전한 인간관계의 세계를 상정에 기초한다. 이러한 여성의 인간관계를 남성 심리학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상이한 환상과 사고를 분석하면 그들은 각기 다른 서열 구조적 인간관계관과 그물 구조적 인간관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인간관계관들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상이한 방식들, 그리고 도덕과 자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에는 서열 구조의 꼭대기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편에서는 그물 구조의 테두리가 되며, 후자에는 그물 조직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전자에서 서열 구조의 중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인간관계관은 서로 상대방 관점에서는 안전하다고 규정하는 곳을 위험한 곳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서열 구조적 이해와 그물 구조적 이해는 추구하는 목적과 기피하는 대상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전자에서 소망되는 것은 정상을 차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남들이 너무 가깝게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는 데 반해, 후자에서 욕구되는 것은 그물 구조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이 너무 테두리로 밀려날까봐 두려워한다. 이 두 관점을 채택하는 사람들이 이렇듯 상이한 현상 - 자신이 소외되는 것과 자신이 추월 당하는 것 - 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 두 인간관계관에서 각각 묘사되는 성공과 애착이 서로 다른 모습을 띠며, 옳다고 인식되는 행위가 서로 다르며,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이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서열 구조적 이해나 그물 구조적 이해가 둘 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이 두 모습이 모두 인간 삶의 순환에 본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불평등과 상호 연결은 각각 인간관계의 다른 이상들인 정의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를 뒷받침한다. 전자에 따른다면 자아와 타아는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받을 것이며, 권력의 분배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회는 정의로울 것이다. 후자에 따른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도덕적인 고려에 포함될 것이며, 그들의 필요에 적절한 응답이 주어질 것이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통 받지 않을 것이다.

3) 차이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보살핌의 윤리는 전통적 여성의 윤리인 희생과 헌신의 윤리로 여성을 다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인의 삶을 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여성은 항상 타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하게하며 이 역할을 여성에게만 한정시켜 여성을 더욱 억압할 수 있다